

국내 항공정비기술 높인다

정부 가 MRO(항공정비서비스) 육성에 소매를 걷어 붙인다. MRO는 항공기 운항 지원과 비행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분야. 세계 항공정비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08년 기준으로 451억 달러에 달할 만큼 주요 항공산업 분야로 성장했다. 더욱이 그 규모도 매년 4.3%씩 증가하고 있어 MRO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MRO 점유율은 약 1.8%로 정부도 안정적인 항공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MRO 산업과 같은 꾸준한 매출이 가능한 분야를 육성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확정하면서 완제기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수익창출이 가능한 MRO를 산업화하여, 항공산업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먼저 MRO 물량 확대를 위해 국제공항 및 군용기를 활용해 MRO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주 및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국제공항을 MRO 서비스 공급기지로 육성해 경쟁국 대비 저비용, 고품질 MRO 서비스 방안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각종 세수혜택 등 유인책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군용기 MRO 물량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군 물량은 향후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민간 위탁 확대를 위해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1년 PBL 도입 후 군 물량의 50%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또한 MRO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해 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지원, MRO 전문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엔진 정비부지와 시험시설이 집적된 항공정비 복합시험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싱가포르의 장야공항 주변에 MRO 복합단지를 조성해 연간 40억 달러를 산업화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중국, 태국 등 저임금 MRO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항공전자장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부품에 R&D를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우리나라를 선진국 수준의 항공정비기술 강국으로 육성한다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항공사고 예방은 물론 우리나라를 환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항공정비기술 강국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3월 밝혔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매출액을 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을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성장해 왔지만, 항공정비산업은 항공사의 자가정비 위주로 성장했고, 고급정비 기술과 시설 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항공기 정비 수요 중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핵심정비를 미국, 호주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 항공정비업체 현황 (09년 기준)

업체명	항공정비업 '09년 매출(억원)	정비인력 (명)	비고
삼성테크윈	6,879	981	• 엔진 제작 및 중정비 등
한국항공우주산업	1,961	2,848	• 항공기 제작 및 중정비 등
대한항공	1,459	3,146	• 항공기 및 엔진 중정비 등
한화	1,370	309	• 항공기부품 제작 수리
유아이헬리콥터	150	100	• 헬기·부품 중정비 등
한국타임즈항공	35	53	• 헬기 중정비 등
아시아나항공	32	1,051	• 항공기 경정비 등

자료 : 국토해양부. 상기 매출액은 자가정비·제작부문을 제외한 순수 항공정비업의 매출액으로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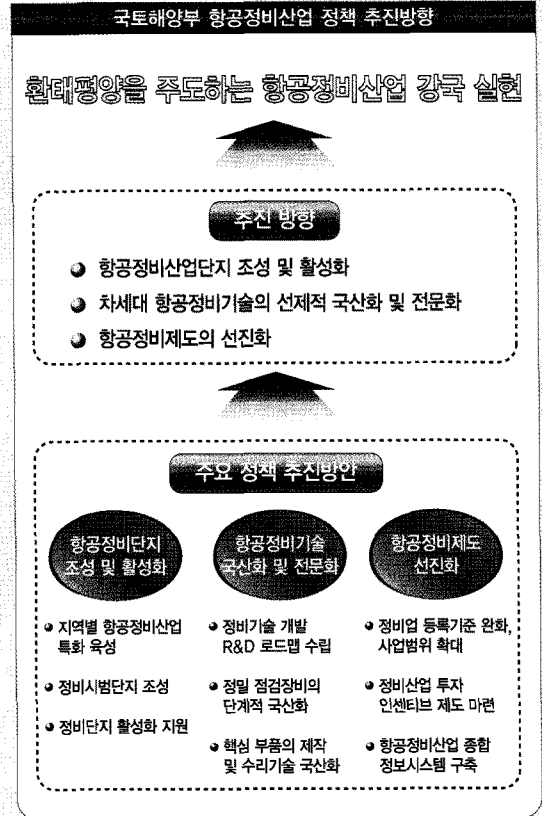
국내 주요 항공사의 외국 위탁정비 현황 (09년 기준)

항공사	외주 정비범위	외주 국가	외주액 (백만불/년)
대한항공	일부 엔진	미국(P&W) 등	116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및 엔진 등	대만(EGAT) 등	233
제주항공	항공기·엔진	호주 등	3.1
이스타항공	중정비 대부분	스위스	2.2
에어부산	엔진 등	아일랜드	1.3
합계			355.6

자료 : 국토해양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정비 시범단지를 조성해 항공정비 기술 선진화를 통한 R&D 확대 및 항공정비산업 관련 제도의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여건을 고려해 항공정비산업업을 운항정비(인천, 김포), 엔진정비(창원, 부천), 기체정비(김해) 등 정비분야별로 특화되도록 유도해 가면서 신규 항공정비업 투자를 위한 항공정비단지는 인력, 시설인프라, 접근성 등 항공정비의 특수성과 투자 수요 및 공항 배후입지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국방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2015년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항공안전과 연계된 핵심 항공정비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항공정비기술 R&D 로드맵을 마련하여 오는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정비산업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정비업 등록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항공정비업 범위 확대 등 항공정비 품질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며 시설, 기술, 인력 등 국가 항공정비인프라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국가 항공정비산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도 2011년부터 구축해 나가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계지원 등 항공전문 정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안전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항공정비단지의 활성화 등을 통해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 전 분야에서 원-스톱 정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정비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6